

‘전남도 국비 9조’ 주역…박창환 경제부지사 이임

미래 전략산업 재정 기반 조성 성과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 마련”

전라남도는 제13대 박창환 경제부지사가 지난달 30일 가족과 도청 직원의 환송 속에 이임식을 갖고 3년5개월간의 부지사 재임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박창환 부지사는 제4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획재정부 정책상황팀장, 주미국대사관 재경참사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재정 분야 전문가다.

광양 출신으로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2022년 1월3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부름을 받아 전남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했다. 이후 경제부지사로서 도정의 핵심 재정·경제정책을 이끌었다.

기재부 베테랑 출신답게 박 부지사는 취임 직후 ‘목포역 노후 역사 개량사업’을 비롯한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나서 전남도 국고 예산이 연간 9조 원을 넘어서도록 이끄는 핵심 역할을 했다. 이로써 전남의 미래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든든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부지사는 ‘기업과 도민의 목소리를



박창환 전라남도 경제부지사가 지난달 30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철학 아래 △포스코 동호안 투자규제 완화 △국립의과대학 설립 가시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펀드 확대 등 난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특히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개발 △여수 국동항 건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광양(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 등 전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이끌며 실질적 성과를 이뤘다.

박 부지사는 이임사에서 “지금까지 수

많은 선택 중 전남도와 함께한 3년 5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선택이었다”며 “도청 가족이 보내준 따뜻한 응원과 지지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전남도의 이름을 빛내겠다”고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inilbo.com

세방그룹, 사랑의열매 ‘1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9일 세방그룹이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가입식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세방그룹 본사에서 열렸으며, 박정희 세방전지(주) 대표이사,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방그룹은 올해 5억원의 기부금을 사랑의열매를 통해 광주광역시에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눔명문기업’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해당 기부금은 광주 지역 내 어르신 체육 및 복지 향상, 저소득층 명절·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분야의 배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방그룹은 1980년대 하남산업단지에 자동차 배터리 국내 1위 브랜드인 로케트 배터리를 생산하는 세방전지 연속전지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29일 세방그룹이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2021년에는 계열사 세방리튬배터리가 약 1200억원을 투자해 평동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모듈 및 팩 제조 공장을 준공, 운영하며 지역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세방이의순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 프로젝트 ‘희망스위치 ON’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겨울철 연탄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돕고 있다.

박정희 세방전지(주)대표이사는 “세방그룹은 광주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기업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나눔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철홍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은 “세방그룹은 물류와 배터리 제조를 기반으로 산업을 선도해온 기업으로, 지역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번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전남대병원 조형호 교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전남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조형호(사진) 교수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조 교수는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개방형실험실 구

축 사업단장으로 석·박사 학생을 지도했으며, 의료기술 사업화와 지도학생의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등 우수 의사과학자 육성에 기여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 교수는 “의료 현장은 날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적 사고를 갖춘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문과 실력을 겸비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써 이들이 진료 및 의학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병하 기자



동강대, 2025학년도 홍보대사 10명 임명

만학도·베트남 유학생도 포함

동강대학교가 2025학년도 학교를 대표할 홍보대사 10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60대 만학도와 베트남 출신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사진)

동강대학교는 지난달 29일 본관 장원홀에서 ‘2025학년도 홍보대사 임명식’을 열고, 새 홍보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홍보대사로 임명된 학생은 △간호학과 한동욱(2년)·김지후(1년) △군사학과 김가온·안지완(1년) △미디어콘텐츠와 임채만(2년) △사회복지과 서두리(2년) △유아교육학과 문은빈

(1년) △임상병리학과 박시현(1년)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황티쓰영·찬반마임(1년) 등 총 10명이다.

특히 미디어콘텐츠과 임채만 씨는 무등난타 명인 출신으로, 늦깎이로 대학에 입학한 만학도다.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의 황티쓰영·찬반마임 씨는 지난해 동강대 한국어학당을 수료한 뒤 정식 학부과정에 입학한 베트남 유학생이다.

홍보대사들은 교내 CS(고객만족)센터에서 기본 매너 교육을 받은 뒤, 캠퍼스 투어 안내, 대내외 홍보 행사 지원 등 동강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최동환 기자



강사랑환경대학, 장록습지 환경정화 활동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학장 박기종, 대표 고평현)은 지난달 30일 광산구 장록 국가습지 주변구간(2km)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환경정화 공익활동과 함께 공익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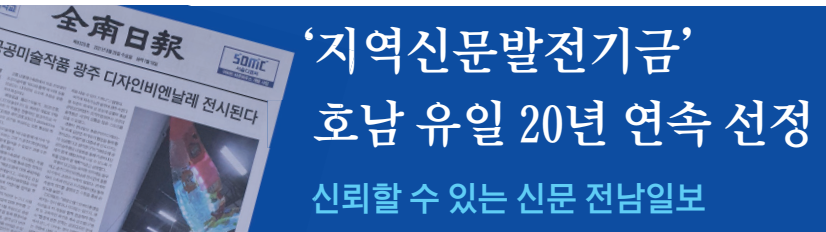
이번 정화 활동은 광주광역시,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 밀알신탁, 빛고을 하천네트워크 후원으로 강사랑환경대학 회원 20여명이 참가했다. 강사랑환경대학은 오는 12월말까지 6~7회 광주권내 강·하천 환경정화 공익활동을 지

속해 나갈 계획이다.

장록 국가습지는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하며 주변경관이 우수하고, 자연적인 습지 원형이 잘 보전된 하천형 습지로서, 생태 훼손지 복원, 보전·이용 시설 조성, 자연과 주민들이 공존하는 생태지역이다.

한편, 강사랑환경대학은 2013년 제1기 환경대학을 시작으로 올해 13기 환경대학 과정을 지난 5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8주간 진행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inilbo.com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란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전일 게시판

알림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알코올·인터넷·도박·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과 가족을 위한 무료상담 및 교육 실시 (062)526-3370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 주치의 운영=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상담 (062)413-1195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문의: (062)675-1391